

2017 서울시 9급 B형 해설과 총평

제공 : 유두선 교수

1. 논리문제에 해당한다. 중간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① ‘살다’와 ‘죽다’는 중간항이 없는 모순개념 ②, ③, ④는 모두 중간항이 있는 반대 개념이다.

정답 ①

2. ‘개살구, 헛웃음’은 접두사가 ‘낚시질, 지우개’는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이다. ① ‘건(乾)’은 ㉠ ‘건어물, 건바닥’에서 마른 또는 말린의 뜻으로 더하는 접두사. ㉡ ‘건물음, 건주정’에선 길으로 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근거나 이유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②. ③, ④는 합성어

정답 ①

3. ‘甁’은 17자에 속하지 않으나 우리말에 쓰였다. ‘ㄹ’은 17자에 속하나 주로 한자 표기를 위해 사용했다.

정답 ④

4. 보기는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① ‘만나는 사람들마다’를 볼 때 <보기>와 같이 군중의 오류를 범하는 중 ②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③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④ 사적관계에 호소하는 오류

정답 ①

5. ④ 채만식의 <치숙>이다. ‘나’라는 화자가 아저씨를 비난하는 형식이지만 독자는 현실에 야합하려는 ‘나’를 비판하게 된다. ① 내지인의 삶을 갈망하고 있다.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③ 아저씨의 내면을 추리한 부분은 없다.

정답 ④

6. ② ㄴ첨가와 비음화 되어 [항녀울]로 발음되고 Hangnyeoul로
바르게 표기되었다. ① [설릉]으로 발음되고 Seolleung 라 표
기함 ③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Nakdonggang ④
체언에서는 ‘ㅎ’을 표기한다. Jiphyeonjeon 으로 표기한다.

정답 ②

7. ③ 거센소리 앞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바른 표기이
다. ① 기본형 ‘분다’ 이다. 부는 -> 분는 ② 안울림 소리 뒤
에서는 ‘하’는 탈락시킨다. 녀녀하지 -> 녀녀지 ④ ‘로써’는 도
구, ‘로서’는 자격. 이 글에선 자격의 의미이므로 자료로써 ->
자료로서

정답 ③

8. ① 띄어쓰기는 「독립신문」에서 처음 시도했고, 규범화한 것
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다. ② 주격조사 ‘가’는 임
란 전후에 사용 ③ 1933년에 안쓰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람마다 사용하였다. ④ ‘병’은 ‘오/우’로 변했다.

정답 ①

9. ④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말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제일 앞에
을 내용을 묻고 있다. 그러면 ‘최불’과 ‘죽죽’을 포괄하는 내용
이 맨 앞에 와야 한다. ㉠이 맨 앞에 오고 그 예로 최눌이나 죽
죽의 이야기를 예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정답 ③

10. 윤동주의 <별헤는 밤>에서 출제. ③ ‘별’은 화자가 지향하려
는 이상 세계다. ① 독백체로 청자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현
실 비판적 시각은 없다 ④ 별은 순수한 대상이지 ‘욕망’을 상
징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11. 굼적대다 : 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또는 몸을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끌끌대다’는 ‘끌끌거리다’와 유사어이며 뜻이 바르게 제시되어 있다. ‘끌끌하다’는 ‘마음이 맑고 바르고 깨끗하다’라는 의미

정답 ②

12. ① 토의(討議) ③ 선택(選擇) ④ 준거(準據)

정답 ②

13. ④는 ‘ㄴ’첨가 현상 ① 비음화. ‘ㄱ’이 ‘ㅇ’으로 대치. ② 유음화. ‘ㄴ’이 ‘ㄹ’로 대치 ③ 된소리되기. ‘ㄱ’이 ‘ㄲ’으로 대치

정답 ④

14. () 앞에 인간 활동도 대립, 통일, 자연 내부에도 대립, 통일이 있다는 내용이 있고 () 뒤에 인간과 자연의 역사를 변증법적 지양이란 말이 나온다. 따라서 () 속에는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는 대립구조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②

15. ④ 산을 바라볼 때 자세를 달리하니 산이 다르게 보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뒤에는 “고정관념을 극복하자” 라는 내용이 오는 것이 좋다.

정답 ④

16. 가뭄에는 도랑을 쳐야 소용없고, 까마귀는 목욕해도 여전히 까마니 소용없다는 내용이다. ① 헛수고와 관련된 속담이다.

정답 ①

17. ② 개전 ① 도야 ③ 쇠도 ④ 골몰

정답 ②

18. ③ 아라비아 숫자 다음의 ‘년’은 붙여쓰기, 띄어쓰기 모두 허용한다. ① 창밖은 합성어로 붙여쓴다. ② ‘우단(의) 천’에서 조사 ‘의’가 생략된 형태로 띄어 쓴다. ④ 부정어 앞에서 ‘밖에’는 조사로 붙여 쓴다.

정답 ③

19. ㉠ ㉡ ㉢의 주어는 ‘환자’이고 ㉣의 주어는 ‘우리’이다.

정답 ③

20. ㉠ 1970년대 ㉡ 1920년대 ㉢ 1950년대 ㉣ 1930년대

정답 ②

총평

2017년은 문법·어휘 10문항 독해 3문항, 문학·국문학사 3문항 한자 2문항, 논리 2문항이 출제되었다. 특이한 점이라면 문법·어휘가 줄고, 독해가 3문항씩이나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언어논리가 2문항씩 출제된 점은 앞으로 공무원 국어 문제가 언어·논리 중심으로 변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고유어의 경우 국가직, 지방직과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되었다. 한자도 바르게 쓰기와 읽기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문법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번에는 품사를 제외하고 골고루 출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